

합리적 경영 위한 과학적 토대 마련해야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1로 본 우리 공연예술계의 현주소

박영정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정책팀장

조사의 배경과 의미

지난 2월 1일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예술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어 왔던 객관적 증거자료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상징물이 된 『창의한국』과 『예술의 힘』(문화관광부, 2004년 6월 발간)을 만들 때에도, 연간 계획으로 발표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도 공연예술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곤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조사는 공연예술계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제공을 통해 공연예술정책의 수립이나 공연시설, 공연단체 등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해 보자는 데 목적으로 두었다.

그렇지만 공연예술계의 실태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난점과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문제였다. 공연행정기관, 공연시설과는 달리 공연단체와 공연기획사는 모집단 확정부터가 쉽지 않았다. 등록제도가 없는 공연예술단체의 경우는 전국에 몇 개 정도의 공연단체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 조사 과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사의 과정을 2단계로 나누었다. 1차 조사에서는 『문예연감』에 수록된 공연단체(활동실적이 있는 공연단체임)를 중심으로 『2003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기존 유사조사에서 활용되었던 공연단체 리스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등에 기금지원을 신청한 공연단체의 리스트,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일간지 공연기사에서 언급된 공연단체 명단 등을 수집하여 대조한 후, 중복 단체를 제외하고 하나의 리스트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약 3,400여 개의 공연단체 리스트 가운데 2달 정도의 전화조사를 통해 현장조사가 가능한 단체를 확정하고 결과 2,400여 개의 조사대상 리스트를 완성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2단계 현장조사에서는 전국 515개 공연시설(613개 공연장), 2,060개의 공연단체, 187개의 공연기획사, 251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공연예술 실태조사의 또 다른 난점은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데 비해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많다는 점이었다. 4차에 걸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필요한 자료와 실제 작성 가능한 자료 사이의 틈을 해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는 공연예술계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제공을 통해 공연예술정책의 수립이나 공연시설, 공연단체 등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해 보자는 데 목적으로 두었다. 그렇지만 공연예술계의 실태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난점과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공연예술 실태조사의 또 다른 난점은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데 비해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많다는 점이었다. 또 하나의 한계점은 공연시설,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사이의 자료 중복의 문제이다. 향후의 조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공연예술시장의 조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결하지는 못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유료관객의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무료관객이나 공연시설의 대관공연 등은 구비된 자료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도가 문제되었다. 따라서 조사항목의 수를 최소한으로 축소했음에도 조사에 응한 공연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고,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무응답 사례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

조사는 2005년 4월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기준 연도는 2004년도(2004.1.1~12.31)이었다. 이번 조사는 2004년도 실적 조사로서 2005년에 활동이 개시된 단체나 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집계한 결과 조사 대상 및 응답자 현황은 [표1]과 같다.

이번 조사의 내용은 각 조사대상의 일반현황, 공연활동 현황, 재정현황, 인력현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가장 관심이 큰 분야인 공연활동 현황(공연 작품 현황, 관객현황, 작품별 제작규모 현황 등)을 중심으로 2004년도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2004년도 공연활동 현황

공연작품 현황

2004년도 공연시설(공연장)에서 개최된 공연건수 2만 2천 96건, 공연일수 4만 4천 973일, 공연횟수 6만 3천 711회이고, 공연단체에서 공연한 작품 수는 7,419편, 공연일수

[표1]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 응답자 현황

조사대상	조사대상(개)	응답자(개)	응답률(%)	응답자 속성
공연행정기관	251	251	100.0	정부 1, 광역 16, 기초 234
공연시설 (공연장)	515 (613)	410 (541)	79.6 (88.3)	공공 27(385), 민간139(156)
공연단체	2,060	1,522	73.9	연극 378, 무용 241, 양악 478, 국악 385
공연기획사	187	110	58.8	영리법인 49, 개인사업 57, 기타 4
계	3,013	2,293	75.6	

[표2] 2004년도 공연작품 현황

(단위: 건, 일, 회)

구 분	소 계	공연시설(공연장)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대관공연	자체기획공연		
공연건수(작품수)	22,096	18,868	3,228	7,419	997
공연일수	44,973	30,648	14,325	33,212	5,228
공연횟수	63,711	38,614	25,097	47,196	6,718

3만 3천 212일, 공연횟수 4만 7천 196회이며, 공연기획사에서 기획한 공연 작품 수는 997편, 공연일수는 5,228일, 공연회수는 6,718회로 나타났다. [표2] 참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공연시설(공연장),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공연실적을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공연도 대부분 공연시설에서 개최되므로 자료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단일한 자료로 전국규모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면, 공연시설에서의 공연활동 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연단체 공연은 대부분 공연시설(공연장)의 대관공연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도 공연시설(공연장) 자체기획공연이나 공연시설(공연장) 이외의 공간에서의 공연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연시설(공연장) 대관공연 실적과 공연단체의 공연실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공연기획사의 공연도 공연단체의 공연이나 공연장 자체기획공연 실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공연시설에서 유의할 결과는 대관공연과 자체기획공연의 비교이다. 대관공연에서는 공연건수가 많은 데 비해 공연횟수는 많지 않고, 자체기획공연에서는 공연건수에 비해 공연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자체기획공연이 대관공연보다 장기적 공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관공연에서는 공연건당 평균 공연횟수가 '2.5회' 인 데 비해, 자체기획공연에서는 공연건당 평균 공연횟수가 '7.77회' 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공연시설(공연장)에서의 공연은 단기공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 공연장 자체기획공연 장르별 공연작품 현황

(단위 : 건, 일, 회)

구분 전체(n=474)	공연건수 3,228	공연일수 14,325	공연횟수 25,097
연극	673	6,027	9,041
뮤지컬	202	1,789	2,493
국악	495	739	751
창극	28	300	347
양악	681	737	796
오페라	47	106	124
무용	318	385	596
발레	67	107	124
종합/복합	376	3,801	10,467
학생발표회	341	334	358

[표4] 2004년도 공연관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공연시설(공연장)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소 계	대관공연	자체기획공연		
합계	13,275,713	9,404,699	3,871,014	11,667,441	1,707,901
유료관객	6,279,777	3,808,043	2,471,734	3,767,866	1,084,479
무료관객	6,995,936	5,596,656	1,399,280	7,899,575	623,422

공연시설(공연장)의 공연작품 가운데 자체기획공연의 장르별 현황을 보면 공연건수에서는 양악, 연극, 국악, 종합/복합, 학생발표회의 순으로, 공연횟수에서는 종합/복합, 연극, 뮤지컬, 양악, 국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연건당 공연횟수를 보면 연극(13.4회), 뮤지컬(12.3회), 창극(12.4회)은 높게 나타났지만, 오페라(2.6회), 발레(1.9회), 무용(1.9회), 국악(1.5회), 양악(1.2회)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3] 참조.

공연관객 현황

2004년도 공연시설(공연장) 총 이용자수는 1,998만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국악 등 공연프로그램의 관객은 1,328만 명이었고, 그 외의 670만 명은 영화 관람, 일반행사 참여자들이다. 670만 명의 이용자는 공연시설이 공연예술 이외의 다양한 행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유료관객은 628만 명이고, 무료관객은 700만 명이었으며, 대관공연의 관객은 940만 명, 자체기획공연의 관객은 387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대관공연의 유료관객(381만 명)이 자체기획공연의 유료관객(247만 명)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는 대관공연 유료관객이 40.5%인데 비해 자체기획공연 유료관객은 63.9%로 자체기획공연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자체기획공연보다 대관공연에 무료공연이 많다는 의미이다. 전체로 보면 유료관객의 비율이 47.3%로 나타나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700만 명의 무료관객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무료관객이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관람한 '공짜표 관객'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처럼 무료관객의 수가 많은 것은 처음부터 '무료공연'으로 기획된 공연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공연관객의 관람의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다. 이 점에서 자체기획공연의 경우 유료관객 비율이 63.9%로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공연단체 공연은 1,167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연기획사 공연 관객은 171만 명으로 나타났다. 공연단체 공연에서 유료관객 비율이 32.3%로 낮게 나타난 것은 찾아가는 공연활동 등 공공보조를 받아 무료공연을 많이 시행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영리활동으로 이루어진 공연기획사의 공연에서는 유료관객의 비율이 63.5%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를 보였다. [표4] 참조.

앞서 공연작품 현황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연시설(공연장)의 관객수와 공연단체, 공연기획사의 관객수를 단순 합산하여 전체 관객으로 집계하게 되면 중복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하는 경우에는 공연시설의 관객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다.

추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응답사례수 평균을 전체

사례로 확대 적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을 통해 대략의 규모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표5] 참조. 대관공연 관객현황에 대한 응답 공연장 수는 363개, 자체기획공연의 관객현황에 대한 응답 공연장 수는 436개, 전체 공연장 수는 613개라는 조건에서 [표5]와 같은 방식으로 총관객수를 산출하였다.

전국 613개 공연장의 총관객수는 2,132만 명”, 그 중 대관공연 관객 1,588만 명, 자체기획공연 관객 544만 명이며, 유료관객은 991만 명, 무료관객은 1,142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외에 공연시설(공연장) 밖에서 이루어진 공연단체의 관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관객은 2,132만 명을 약간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장권 판매액

공연시설(공연장) 자체기획공연의 입장권 판매액은 219억 원, 공연단체의 입장권 판매액은 242억 원, 공연기획사의 입장권 판매액은 23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공연시설 대관공연의 입장권 판매액은 공연시설 측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의 경우 응답한 433개 공연장의 67.4%에 해당하는 292개의 공연장에서는 입장권 판매 실적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여기에는 무료공연 실적만 있거나 자체기획공연 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실적이 있는 141개 공연장에서의 공연장당 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보면 연간 1억 5,49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공연단체의 경우 입장권 판매액에 대한 응답자는 1,430개 단체였으며, 그 가운데 입장권 판매 실적이 있는 단체는 544개였다. 그 경우 단체당 평균 입장권 판매액은 연간 4,449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연기획사의 경우에는 50개 회사가 이 부분에 응답했으며, 기획사당 평균 입장권 판매액은 연간 4억 6,291만원으로 나타났다. [표6] 참조.

전체 입장권 판매액은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219억 원, 공연단체 242억 원, 공연기획사 232억 원 사이에 중복이 없으므로 이 셋의 합계값인 693억 원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판매액은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장권 판매액을 실질적인 공연분야 매출 규모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좀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작품 제작 규모 현황

이번 조사에서는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공연단체 정기공연, 공연기획사 기획공연만을 대상으로 작품건당 제작규모 현황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여 보았다. 주요 내용은 작품당 투입 인력과 재정 규모, 그리고 작품당 관객 현황 및 입장권 판매액 등이다.

[표5] 2004년도 공연관객 현황(추정값)

구 분		조사된 관객수			추정 관객수(명) (②)× 613
		관객수(명)	공연장수(개)	평균(②)(명)	
대관공연	유료관객	3,808,043	363	10,490.5	6,430,676.5
	무료관객	5,596,656	363	15,417.8	9,451,111.4
	소계	9,404,699	363	25,908.3	15,881,787.9
자체 기획공연	유료관객	2,471,734	436	5,669.1	3,475,158.3
	무료관객	1,399,280	436	3,209.4	1,967,362.2
	소계	3,871,014	436	8,878.5	5,442,520.5
	합계	13,275,713	-	-	21,324,308.4

[표6] 2004년도 공연 입장권 판매액

(단위 : 천원, 개)

구 분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입장권 판매액	21,852,501	24,201,757	23,145,670
실적 사례수	141	544	50
평균 입장권 판매액	154,982	44,489	462,913

◆작품당 공연일수 및 공연횟수

작품당 공연일수는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17.7일, 공연단체 정기공연 4.1일,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11.7일, 작품당 공연횟수는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23.5회, 공연단체 정기공연 5.6회,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17.3회로 나타났다.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과 공연기획사의 기획공연이 비교적 길게 나타났고, 공연단체는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공연단체 가운데는 장르특성상 단기공연의 형태를 취하는 음악, 무용 공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연극 장르의 경우에는 작품당 평균 공연일수 12.2일, 공연횟수 18.3회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7] 참조.

◆작품당 관객 현황 및 유료관객 객석점유율

작품당 관객수는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3,323명, 공연단체 정기공연 1,324명,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5,11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다시 1회 공연당 관객수로 파악해 보면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141명, 공연단체 정기공연 236명,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295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연시설의 자체기획공연은 회당 관객수는 적지만 장기공연을 통해 작품당 관객수는 높은 편이고, 공연단체 정기공연은 작품당 관객수는 적지만 회당 관객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기획사 기획공연은 작품당 관객수와 회당 관객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8] 참조.

[표기] 작품당 공연일수 및 공연횟수

(단위: 편, 일, 회)

구 분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공연단체 정기공연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응답사례수		90	873	33
공연일수	일수	1,590	3,544	385
	평균	17.7	4.1	11.7
공연일수	횟수	2,118	4,906	572
	평균	23.5	5.6	17.3

[표외] 작품당 관객수

(단위: 편, 명)

구 분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공연단체 정기공연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응답사례수		90	873	33
작품당 관객수	관객수	299,076	1,155,933	168,871
	작품당 평균	3,323.1	1,324.1	5,117.3
공연1회당 관객수	공연횟수	2,118	4,906	572
	1회당 평균	141.2	235.6	295.2

작품당 관객수 가운데 유료관객수의 현황을 보면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은 1,809명(전체 관객 3,323명의 54.4%), 공연단체 정기공연은 603명(전체 관객 1,324명의 45.6%), 공연기획사 기획공연은 4,077명(전체 관객 5,117명의 79.7%)로 나타났다.

공연 1회당 유료관객은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77명, 공연단체 정기공연 107명,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23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공연의 유료관객 객석점유율(유료관객 객석점유율 =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유료관객 객석점유율 = 유료관객수 : (공연장 정원 × 공연횟수) × 100 을 산출해 보면, 공연시설 자체 기획공연은 40.1%, 공연단체 정기공연 20.2%,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47.5%로 나타났다.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과 공연기획사의 기획공연은 비교적 안정적인 유료 관객 객석점유율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외] 참조.

◆작품당 자원 조달 현황

작품당 자원 조달 구조를 보면 작품당 총액은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8,385만원, 공연단체 정기공연 2,572만 원,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1억 4,343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원별로 보면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과 공연기획사 기획공연에서는 입장료수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공연단체 정기공연에서는 공공보조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작품당 입장료 수입을 보면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은 3,942만 원(전체 수입의 47.0%),

공연단체 정기공연은 624만 원(전체 수입의 24.3%), 공연기획사 기획공연은 9,732만 원(전체 수입의 67.8%)으로 조사되었다.

작품당 투자금 유치는 공연기획사 기획공연에서만 소규모로 나타났다. [표10] 참조.

◆작품당 제작비 투입 현황

작품당 제작비 투입 구조를 보면 작품당 제작비 총액은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6,939만 원, 공연단체 정기공연 2,470만 원,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1억 1,768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연기획사의 제작비 규모가 크고, 공연단체의 제작비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지출 품목별로 보면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과 공연기획사 기획공연에서는 출연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고, 공연단체 정기공연에서는 장치 및 소품제작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작품당 출연비를 보면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은 작품당 3,420만 원(전체 지출의 49.3%), 공연단체 정기공연은 732만 원(전체 지출의 29.7%), 공연기획사 기획공연은 5,453만 원(전체 지출의 46.3%)으로 조사되어 전체 제작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단체의 경우 출연료 부분이 자체 출연자의 경우 일부 집계

[표9] 작품당 유료관객 객석점유율

(단위: 편, 회, 명, %)

구 분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공연단체 정기공연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응답사례수	90	873	33
공연횟수	2,118	4,906	572
유료관객수	162,823	526,787	134,525
작품당 유료관객수	1,809.1	603.4	4,076.5
1회당 유료관객수	76.9	107.4	235.2
유료관객 객석점유율	40.1	20.2	47.5

[표10] 작품당 재원조달 현황

(단위: 명)

구 분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n=90)		공연단체 정기공연 (n=873)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n=33)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작품당 수입 합계	83,850	100.0	25,716	100.0	143,425	100.0
작품당 자체예산	21,333	25.4	7,114	27.7	25,382	17.7
작품당 투자유치금	-	-	-	-	10,312	7.2
작품당 공공보조금	18,457	22.0	8,289	32.2	5,621	3.9
작품당 민간기부금	2,503	3.0	3,399	13.2	2,685	1.9
작품당 입장료수입	39,419	47.0	6,241	24.3	97,316	67.8
작품당 기타수입	1,230	1.5	673	2.6	2,108	1.5

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당 대관비에서 공연기획사 기획공연(1,339만 원)이 공연단체 정기공연(205만 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작품당 공연횟수가 공연기획사 쪽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를 공연횟수당 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공연단체 정기공연 대관비는 37만 원이며, 공연기획사 기획공연은 77만 원으로 간격이 좁혀진다.

최근 공연기획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홍보 및 마케팅비는 작품당 평균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907만 원(전체 제작비의 13.1%), 공연단체 정기공연 387만 원(전체 제작비의 15.7%),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1,916만 원(전체 제작비의 16.3%)으로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 제작비에서의 비중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11] 참조

◆작품당 인력 투입 현황

공연작품 1편을 제작하는데 투입되는 작품당 인력 투입 현황을 보면 작품당 총 인원은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79.0명, 공연단체 정기공연 43.9명,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50.8명으로 나타났다.

인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출연자로, 그 현황을 보면 공연시설 자체 기획공연 49.9명(전체 인원의 63.2%), 공연단체 정기공연 33.6명(전체 인원의 76.5%),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28.6명(전체 인원의 56.3%)으로 조사되었다.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과 공연기획사 기획공연은 출연자 전원이 외부 단체의 출연자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공연기획사 기획공연의 작품당 출연자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출연자 규모가 큰 것은 교향악단 연주회 등 출연자 규모가 큰 음악 공연 등이 많기 때문이다.

그 외 공연기획사 기획공연에서는 작품 스태프와 기획 및 홍보 담당의 비율이 다른 두

[표11] 작품당 제작비 투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n=90)		공연단체 정기공연 (n=873)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n=33)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작품당 제작비 합계	69,391	100.0	24,696	100.0	117,678	100.0
작품당 대관비	-	-	2,051	8.3	13,385	11.4
작품당 출연비(초청비)	34,204	49.3	7,329	29.7	54,533	46.3
작품당 작품비(로열티)	4,611	6.6	1,094	4.4	2,530	2.2
작품당홍보 및 마케팅비	9,069	13.1	3,865	15.7	19,163	16.3
작품당 장치 및 소품제작비	12,116	17.5	5,584	22.6	-	-
작품당 투자배당금	-	-	-	-	3,667	3.1
작품당 연습비 및 기타 경비	9,391	13.5	4,773	19.3	24,400	20.7

[표12] 작품당 인력 투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공연시설 자체기획공연 (n=90)		공연단체 정기공연 (n=873)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n=33)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작품당 인력 합계	79.0	100.0	43.9	100.0	50.8	100.0
작품당 출연자	49.9(49.9)	63.2	33.6	76.5	28.6(28.6)	56.3
작품당 작품 스태프	8.6(8.6)	10.9	4.6	10.4	10.6(10.6)	20.9
작품당 기획 및 홍보 담당	4.2	5.3	2.1	4.9	5.8	11.4
작품당 안내 및 진행 담당	11.2(4.7)	14.2	3.6	8.2	5.8	11.4
작품당 무대기술 담당	5.1	6.4	-	-	-	-

*공연시설과 공연기획사의 ()의 숫자는 공연단체 쪽의 참여인력을 별도로 나타낸 것임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표12] 참조.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가 남긴 과제

이번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에서는 여기에서 소개한 것 외에도 공연시설, 공연단체, 공연기획사의 재정현황, 인력현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예산 현황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지 못한 주요 자료는 문화예술종합 포털사이트인 “예술로”(http://www.art.go.kr) 등을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3월 중순 오픈 예정인 공연예술 통계 사이트에는 보고서 원본 자료는 물론이고, 이용자가 다양한 변수를 선택하여 결과값을 표와 그래프로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향후 주기적으로 조사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하나의 한계점은 공연시설,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사이의 자료 중복의 문제이다. 향후의 조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공연예술시장의 조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미약하나마 『2005 공연예술 실태조사』가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